

VOL. 363 • July • The Monthly Photo Art Magazine

사지예수

SAJINYESUL Since 1989

7월



스페셜 이슈 imagine 상상
글로벌 아티스트 '왕칭송'
광고 사진가 강영호 인터뷰

2019 **7**

우수콘텐츠잡지
2019

9 771739 584000
ISSN 1739-5844



Lissa Rivera, Beautiful Boy, Study in Red and Blue, 2015 ©Lissa Rivera, Image Courtesy of ClampArt, NY

Lissa Rivera

글 박세리Serry Park 해외 필진

리사 리베라(Lissa Rivera)의 최근작 “Beautiful Boy”는 그녀의 남자 친구 비제이 릴리스(BJ Lillis)를 촬영한 사진 시리즈로, 남녀의 성 역할과 그에 따른 기대에 대한 대화를 풀어가는 작품이다. 리사 리베라는 이 연작을 통해 비제이의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탐색하며 그들만의 판타지 세계를 만들어 낸다. 그녀는 2019년 뉴욕의 아모리 쇼(The Armory Show)와 AIPAD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아트넷(Artnet), 하이퍼알러직(Hyperallergic) 등 유명 매체에 리뷰와 인터뷰가 실리는 등, 뉴욕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브루클린을 기반으로 큐레이터와 작가로 활동하는 리사 리베라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나눴다.



Lissa Rivera, Beautiful Boy, Blindfold, 2016 ©Lissa Rivera, Image Courtesy of ClampArt, NY

먼저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만 레이(Man Ray)에 대해 알게 되면서 사진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진 박물관에서 만 레이의 사진집을 보게 됐는데, 사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유로움에 매료된 것 같아요. 만 레이의 초상 사진을 보면서 성 정체성에 대해 재미있게 탐구하고, 자유롭게 탐색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만 레이의 영향을 받아서 16, 17살에 사진을 찍었고, 그때부터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길을 따라왔죠. 그러다 5년 전에 BJ와 “Beautiful Boy”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과거로 돌아가 제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열정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시기를 많이 생각하면서 그 시기에 제가 좋아했던 작업들과 다시 연결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BJ는 사진의 역사나 영화의 역사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다시 사진과 영화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우리의 작업에서 녹여내는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Beautiful Boy”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저랑 BJ는 뉴욕의 박물관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였어요. 점심 식사 시간에 얘기를 많이 나누며 친해졌죠. BJ가 어느 날, 자기가 여성의 옷을 즐겨 입었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털어놨어요. 왜냐하면 사회에는 성 정체성에 대한 압박이 아직도 많이 있었고, 성 소수자(Gender-queer)의 경우에는 사회의 암묵적 규율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저도 그 당시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시기여서 BJ와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 작업은 우리의 욕망과 열정, 우리의 삶, 우리가 좋아하는 작품을 돌아보고 재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여정 중에 있는 거죠.

개인적인 지점에서 시작된 작품이라 사람들이 더 진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저는 독학한 아티스트에 관심이 많아요. 미대에 가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열정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그런 작가들 있잖아요. 작가가 죽고 나서 작품 아카이브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제가 일하던 곳에서 개인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서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BJ도 함께하면서 사진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면 좋

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래된 천을 사고, 싼 배경 스탠드를 사서 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제 옷장에서 천이랑 배경을 고르고, 옷을 입어보고 찍은 그 사진들은 우리에게겐 의미 있는 특별한 것들이었어요. 그 사진들을 반복해서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는 걸 깨닫고 연인이 됐죠. 우리의 정체성과 제일 잘 통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같이 패브릭 샵에 가서 천을 구입했죠. 스튜디오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촬영은 주방에서 해야 했어요. 촬영할 때마다 가구를 옮기면서 제약이 많았죠, 그래서 로케이션 촬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로케이션용 옷장을 만들고, 스토리 라인도 만들고, 그 장소에 맞는 몇 가지 자료를 찾고 촬영을 하죠.

로케이션 촬영을 할 때, 미리 계획하는 편인가 아니면 즉흥적으로 작업하시나요?

촬영 장소의 이미지를 미리 찾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상을 결정하기도 해요. 사진을 갖고 와서 포토샵으로 색깔을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하고 미리 계획을 짜는 거죠. 하지만 이미지를 찾을 수 없으면 즉흥적으로 슈트 케이스에서 꺼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상이나 소품 등은 여기저기에서 구입해요. 동네 구제 샵이나 이베이, 옻시 등 여러 군데에서요. 천으로 배경을 만들어 쓴 작품들은 초기에 한 것이고 더 이상은 하지 않아요. 요즘은 로케이션 작업만 하고 있어요. 밖으로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공간에 가면 그 곳의 역사에 영감을 많이 받아요. 그 공간의 사회성이나 정체성이나 건축적인 특성을 보며 그 안에 누가 살았을까 예상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건축물이 그 공간을 쓰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집과 같은 실내 공간에는 질은 여성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 어떻게 장식돼 있고, 어떻게 보이는지는 제 사진에 또 다른 이야기를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BJ와 함께 오래된 집에서 사진을 찍는 데 매력을 느껴요. 우리가 공간에 들어가서 그 안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작품을 통해 사회의 계층과 소외의 문제들을 다루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떨 때에는, 촬영할 공간만 보더라도 여러 겹쳐진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매우 부유한 사람이 살았던 큰 저택인데 현재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서 예전의 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하고 낡은 집에서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BJ는 고급 실크로 만든 옷을 입었지만, 그 옷마



Lissa Rivera, Beautiful Boy, Study with Chairs, 2016 ©Lissa Rivera, Image Courtesy of ClampArt, NY



Lissa Rivera, The Silence of Spaces, Uniform, 2017 ©Lissa Rivera, Image Courtesy of ClampArt, NY

저도 시간이 지나 구겨지고 낡았죠. 계층과 부유함이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았기에 지금 우리같이 평범한 예술가들이 그 집을 빌리고 들어가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옷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는 행동을 통해 부유한 지위로 들어가는 듯한, 마치 역할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중적인 면을 탐색하는 게 재미있어요.

요즘 큰 규모로 촬영하는 작가들도 많죠. 리사의 작품을 보면, 아이들이 치장하고 노는 듯한 자유로움이 느껴져요. 과도하지 않은 세팅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이 옷 저 옷 입어보고 노는, 그

장소에서 상상력을 갖고 노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라이팅도 없이, 삼각대랑 카메라만 들고 로케이션 장소로 가요. 슈트 케이스 안에는 이런 저런 의상이 들어있죠.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는 상태로, 사진 몇 장으로만 본 곳을 무작정 가는 거예요. 시간도 많지 않아요, 돈이 많이 없으니까요. 장소를 빌리고, 거기에 도착해서 슈트 케이스를 들고 다니면서 그 장소의 에너지를 느끼죠. 메이크업이나 의상이 꼭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벨벳 꽃이나 20년대의 나이트가운 등,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 장소 안에서 시각적으로 즐기는 거죠. 저랑 BJ가 그곳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다양한 감정 상태에 따라 반응하며 촬영을 하죠. 어렸을 때, 옷과 천, 장

신구들이 들어있는 트렁크를 갖고 와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가운데 만들어보는 놀이와 비슷해요, 부담감 없이 즐기는 거예요. BJ는 이제 29살이고 저는 35살이에요. 하지만 BJ는 나이를 믿지 않아요. 사진을 찍어보면 BJ는 항상 젊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전 별로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Beautiful Boy” 시리즈를 통해 여성성에 대해 탐험하고 있는데, 사회의 성 역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더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사회에서 여성성은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말이예요. 남자들이 여성스러워지고 싶어



Lissa Rivera, The Silence of Spaces, Votive Portrait(Prayer Closet), 2018 ©Lissa Rivera, Image Courtesy of ClampArt, NY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유머나 장난으로 여기죠. 왜냐하면 그건 사회적으로 하락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자들이 사회에서 보통 더 적게 돈을 받고, 좋은 위치에 올라간 여성들이 훨씬 적다는 사실을 안다면, 왜 남자가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로 내려갈까 의구심을 가지죠. 저는 여성성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성성의 힘을 되찾고 싶었죠. 글래머러스한 아름다움을 부인하긴 어렵잖아요. 아름다운 여성은 그동안 사회에서 많이 상품화되곤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 “Beautiful Boy” 시리즈를 공개했을 때, 사람들에게서 제가 남자 작가이고 여자 파트너를 찍었다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을 질문들을 많이

들었어요. BJ한테 괜찮냐고도 물어보고 이런 사진을 찍는 게 아주 용감하다는 말도 건넸죠. 이런 말은 사실 친절한 말이지만 한데, 여자 모델이었다면 이런 질문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작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박세리는 중앙대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미술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뉴욕에 거주하며 사진 작업과 글쓰기를 병행하고 있다.

리사 리베라(Lissa Rivera)는 <Absence Portraits>(2015, New York City), <Pulse Miami Beach>(2017, Miami), <Beautiful Boy>(2018, Massachusetts) 등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2017 매그넘 포토그래피 어워드(Magnum Photography Award) 포트레이트 부문에 선정되는 등 다수의 상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